국별 리포트

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3.

Ⅰ. 일반개황 ····· 1

Ⅱ. 경제동향 ····· 2

Ⅲ. 정치·사회동향 ····· 7

Ⅳ. 국제신인도 ····· 9

Ⅴ. 종합 의견 ····· 12

한국수출입은행
THE EXPORT-IMPORT BANK OF KOREA

Ⅰ. 일반개황

면 적	1,285천 km^2	G D P	2,082억 달러 (2014년)
인 구	31백만 명 (2014년)	1 인 당 GDP	6,625 달러 (2014년)
정 치 체 제	대통령중심제	통 화 단 위	Nuevo Sol (Ns)
대 외 정 책	실리주의	환 율(달러당)	2.8 (2014년)

□ 남미 중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 브라질, 콜롬비아, 에콰도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.

□ 은(세계 1위), 구리(3위), 금(8위)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상품수출 중 광물자원이 50% 이상을 차지함. 특히, 구리(총 수출의 23%), 금(22%) 비중이 높아 해당 광물 가격변화에 취약함.

□ 빈곤율은 감소추세이나, 인종간, 지역간 높은 빈부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, 불법 코카인 재배 및 마약거래와 관련된 치안불안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.

□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, 남미국가연합(Unasur), 안데스공동체(CAN)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, 2010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에도 참여하는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Ⅱ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e
경 제 성 장 률	8.5	6.5	6.0	5.8	3.6
재정수지/GDP	-0.1	2.0	2.2	0.7	-0.1
소비자물가상승률	1.5	3.4	3.7	2.8	3.2

자료: IMF.

□ 국내 구리생산 감소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 3.6%로 둔화

○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해 광산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되었으며,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2012년에는 6.0%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.

○ 그러나 2013년부터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,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.6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- 이에 따라 2015년 1월 기준금리 인하, 광산개발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 통화·재정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.

□ 2011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해왔으나, 2014년 적자전환 추정

○ 재정수입 중 광물 관련 수입 비중은 14%로 재정수지가 광업에 의존하는 구조이며, 국제 원자재 가격 호조, 국내 광물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2011년부터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.

○ 2013년에는 복지지출 확대, 공무원 임금상승 등 재정지출은 확대된 반면,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재정수입은 축소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0.7%로 감소함.

○ 2014년에는 국제 광물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한편, 국내 광물생산도 감소하여 광물 관련 세입이 더욱 축소되고,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확대되어 재정수지가 적자전환되었으며,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0.1%로 추정됨.

- 한편, 정부는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 재정계획 수립, 경기상황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설정,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재정법안(2013년 10월 국회통과)을 마련하였으며, 201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예정임.

□ 기준금리 인하, 환율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3.2% 전망

○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(Inflation Targeting)를 운용(2002년)하고 있으며, 관리목표 물가수준은 2%±1%p로 설정함. 2013년에는 양호한 기후조건에 따른 농작물 가격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8%로 중앙은행의 관리목표 이내 수준을 기록함.

○ 그러나 2014년에는 중앙은행의 두 차례(7, 9월) 기준금리 인하,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.2%로 관리목표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됨.

-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2013년 1달러당 2.8솔(Nuevo Sol)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, 2014년 2.99솔까지 상승하며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취약

○ 광업이 재정, 수출, 투자 등과 관련하여 경제의 상당 비중(2012년 기준 경상GDP의 17.6%, 실질GDP의 12.8%)을 차지하고 있어,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임.

- IMF에 따르면, 국제 원자재 가격이 1분기 동안 8% 하락할 경우 페루의 다음연도 민간투자는 약 5%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음.

○ 한편, 최근 몇 년간 광물가격의 하락추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, 페루정부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.

□ 부분적 달러화 경제로, 美 금리인상시 경기위축 가능성 존재

○ 2013년 기준 은행산업 유동성의 38%, (민간)여신잔액의 42%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적 달러화(Dollarization) 경제로, 미국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을 많이 받음.

○ 특히, 페루의 현지 은행간 달러화 표시 자산거래에 적용되는 단기 이자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아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현지 단기 이자율도 동반 상승하여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구리, 아연, 금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

○ 구리(2014년 기준 68백만 톤, 세계 3위), 아연(29백만 톤, 3위), 금(2.1천 톤, 8위)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함.

○ 세계 광물가격 호조,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지 광물생산 비용 등에 힘입어 페루의 광업부문 투자는 2003-12년 동안 연평균 약 32% 증가하였으며, 2012년 기준 광물 생산량은 270억 달러 규모(세계 점유율 4.1%)로 세계 7위 광물 생산국으로 등극함.

- 특히, 구리의 경우 생산비용이 1파운드 당 0.88달러로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(1.49달러)보다 낮은 수준임.

○ 다만, 환경파괴, 개발이익 분배문제 등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광물 생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 페루 북부에 위치한 카하마르카(Cajamarca) 콩가(Conga) 구리·금 광산개발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 대표적인 사례임.

- 한편, 페루 정부는 2014년 11월 복잡한 환경허가 절차 간소화,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환경법을 제정하여 광산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.

□ 잉카문명 유적지 보유 등으로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

○ 마추픽추, 쿠스코 등 잉카문명 유적지 보유, 외국인들의 사업상 방문 확대 등으로 관광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페루 정부 역시 경제 구조 다변화의 일환으로 관광업 성장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면서 향후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음.

- 실제로 2013년 기준 페루의 관광객 수 증가율은 11.2%로 중남미 평균(3~4%)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. 관광산업 수출수입 규모 역시 2012년 24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, 2014년 세계경기 둔화 지속에도 30억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.

○ 2013년 세계경제포럼의 관광산업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페루는 조사대상 140개국 중 천연자원(12위), 문화자원(43위)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. 반면, 치안(118위), 교통 인프라(121위)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여 동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됨.

다. 정책성과

□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부패 만연

○ 높은 성장잠재력,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나, 정부부패는 주요 투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.

- 2014-15년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지수에서 기업경영활동 애로요인으로 정부부패(응답률 15.1%)는 관료주의(21.8%)에 이은 제2요인으로 지목됨.

○ 페루 정부는 5개년(2012~16년) 반부패계획 수립, 열린 정부 파트너십(OGP)* 가입 등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여전히 허가발급, 공공조달 등과 관련하여 뇌물수수와 같은 부패행위가 지속되고 있음.

* 20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체로, 정부 투명성 증진, 부패 척결, 거버넌스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있음.

-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)에서 페루는 조사대상 175개국 중 85위로 2013년(83/177위) 순위보다 하락하였으며, 이는 칠레(21위), 브라질(69위)보다 낮은 수준임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e
경상수지	-3,544	-3,177	-6,281	-9,126	-10,885
경상수지/GDP	-2.4	-1.9	-3.3	-4.5	-5.2
상품수지	6,988	9,225	5,232	-39	-3,157
수출	35,803	46,376	46,367	42,177	34,981
수입	28,815	37,152	41,135	42,218	38,138
외환보유액	42,648	47,206	62,300	64,423	62,073
총외채잔액	43,673	48,090	59,504	60,819	63,225
총외채잔액/GDP	29.4	28.2	30.9	30.1	31.0
D.S.R.	21.5	6.5	9.7	12.8	10.1

자료: IMF, EIU, IIF.

□ 원자재 가격 하락, 국내 광물생산 축소로 상품수지 적자 큰 폭으로 확대

○ 구리, 금 등 광물자원(총수출의 54.5%) 수출비중이 높으며,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수출대상국임. 2002~12년간 국내 광물개발 확대, 국제 원자재 가격 호조, 중국의 광물자원 수입확대 등으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옴.

○ 2013년에는 중국 등 주요 광물수입국의 경기둔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은 크게 축소된 반면, 인프라 건설을 위한 수입은 확대되어 상품수지는 적자로 전환되고, 적자규모는 39백만 달러를 기록함.

○ 2014년에는 내수위축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,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, 국내 광물생산 축소 등으로 수출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는 32억 달러까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.

□ 상품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악화

○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누적하고 있으며, 2012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3.3%를 기록함.

○ 2013년에는 관광수입 확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축소(24억 달러→18억 달러)되었으나, 상품수지가 악화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.5%로 확대되었으며,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5.2%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.

□ 2014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12개월 수준 유지

○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도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644억 달러(월평균수입액의 12.5개월)를 기록함.

○ 2014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재정수지도 적자로 전환되면서 외환보유액이 소폭 축소(월평균수입액 대비 12.4개월)된 것으로 추정됨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야당과의 갈등, 여당 내 분열 등으로 정책추진력 약화

○ 2011년 6월 대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오얀타 우말라(Ollanta Humala)가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집권하고 있음.

- 우말라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후 10개월간 평균 56%에 달했으나, 빈부격차 및 치안불안이 지속되는 한편, 우말라 대통령의 참모로 활동했던 기업가 벨라운데(Martín Belaunde Lossio)의 부정부패 사건, 나아가 2015년 2월에는 영부인 나딘 헤레디아(Nadine Heredia)의 돈세탁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.

○ 2011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페루승리당(Gana Peru)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고, 최근 제1야당인 국민활력당(Fuerze)과의 정치적 갈등 심화, 여당 내부 분열 등으로 정책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음.

- 여당 내 갈등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탈당하여, 페루승리당의 의석수는 집권 초기 47/130석에서 33석으로 축소되었으며, 그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낮아지고 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빈곤율은 감소하였으나, 지역·인종간 빈부격차는 상존

○ 2005~13년간 1인당 소득은 연평균 5% 증가하였으며, 특히 소득 하위 20%의 1인당 소득은 연평균 6.4% 증가하여 페루의 빈곤율은 2005년 45%에서 2013년 24%로 절반 가량 축소됨.

○ 그러나 아푸리막(Apurimac), 카하마르카(Cajamarca)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율이 여전히 극심하며, 안데스 고원 및 동부 밀림 지대 농촌 지역에서 주로 인디오가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간, 인종간 빈부격차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.

-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2004년 0.49에서 2013년 0.44로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함.

□ 광산, 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반대시위 지속

○ 광산, 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, 노동자들의 파업 등이 지속되면서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.

- 2011~12년 콩가(Conga) 및 틴타야(Tintaya) 광산개발 사업의 경우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로 사망·부상자가 발생하면서,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음.

- 2015년 2월에는 아르헨티나계 Pluspetrol社가 추진하는 피차나키(Pichanaki) 지역 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시위가 확대되고 총기난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1명이 사망, 70명이 부상을 입음.

□ VRAEM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법 마약거래가 치안불안을 야기

○ 아푸리막(Apurimac)강, 에네(Ene)강, 만타로(Mantaro)강 계곡지역("VRAEM")을 중심으로 불법 코카잎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마약밀매 단체 및 반정부 사회주의 조직인 '빛나는 길(Sendero luminoso)' 잔당과 연계되면서 치안불안을 야기하고 있음.

○ 페루 정부는 코카잎 재배 근절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15년 2월에는 동 지역을 "no-fly zone"으로 지정함.

3. 국제관계

□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노력

○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, 남미국가연합(Unasur), 안데스공동체(CAN)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지역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○ 칠레와는 태평양전쟁 이후 태평양 해상국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되어왔으나, 2014년 1월 국제사법재판소(ICJ) 판결을 양국이 수용하면서 국경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, 양국간 경제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역외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

○ 미국('09년 발효), 중국('10년), 한국('11년)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양자간 FTA 체결하여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- 남아프리카공화국, 모로코, 이집트 등 중동·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도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음.

○ 현재 미국,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에도 참여하는 등 다자간 무역협정 역시 추진하고 있음.

Ⅳ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낮은 연체비율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

○ 과중한 외채로 8차례(1968, 1969, 1978, 1983, 1984, 1991, 1993, 1996년)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한 바 있음.

○ 그러나 조기 외채상환 실시 등 외채부담 경감 노력을 통해 2014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1.0%로 낮고,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도 12.1%에 불과함.

- 국제금융시장, 현지 채권시장에서의 우호적 채권발행을 통해 파리클럽 채권을 조기상환하면서,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는 동시에 일부 외채를 현지화 표시 내국채로 전환함.

- 2014년 10월에도 외화표시 채권 비중 축소, 만기 연장, 원리금 상환액 감소 등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85.8억 솔(약 29억 달러)의 채권을 발행하여 기존채권의 환매, 교환을 실시함.

○ 한편, 2014년 6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21.3억 달러(단기 11.8억 달러, 중장기 9.5억 달러) 중 연체액은 1.6백만 달러에 불과함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	
OECD	3등급	(2014. 10.)	3등급	(2013. 10.)
S&P	BBB+	(2013. 8.)	BBB	(2012. 8.)
Moody's	A3	(2014. 7.)	Baa2	(2012. 8.)
Fitch	BBB+	(2014. 9.)	BBB+	(2013. 10.)

○ 2014년 10월 OECD는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, 페루의 양호한 외채상환태도, 시장친화적 정책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3등급으로 유지함.

○ 2014년 7월 Moody's는 견고한 경제성장률 지속, 공적채무* 감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로 두 단계 상향 조정함.

* 공적채무 추이: 22.3%('11)→ 20.5%('12)→ 19.5%('13)→ 17.9%('14 추정치)

- 2013년 S&P(8월)와 Fitch(10월)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적 특징에도 불구하고, 높은 민간투자율(2014년 기준 27.8%), 정부의 외채관리노력 지속 등으로 동국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+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**국교수립** : 1963년 4월 1일 (북한과는 1988년 11월 21일 수교)

□ **주요협정** : 무역협정(1976), 사증면제협정(1982),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(1984), 문화협정(1988), 투자증진및보호협정(1994), 관광협력협정(2003), 범죄인인도조약(2005), 자유무역협정(2011), 이중과세방지협약(2014)

□ **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**

<표 4> **한 · 페루 교역규모**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2	2013	2014	주요품목
수 출	1,473	1,440	1,392	자동차, 합성수지, 항공기 및 부품
수 입	1,639	1,983	1,434	동광, 기타 금속광물, 아연광
교역규모	3,112	3,423	2,826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○ 중남미 국가 중 칠레 이후 두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, 2014년 기준 중남미 내 제7위 수출대상국이자 제4위 수입대상국임.

○ 대 페루 교역규모는 2012년 31억 달러, 2013년 34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, 2014년에는 최대 수입품목인 동광, 기타 금속광물 수입이 각각 13.8%, 15.2% 감소하면서 교역규모가 축소됨.

○ 우리나라의 대 페루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12월말 기준 55건, 15.5억 달러(투자누계 기준)를 기록함.

- 특히, 광업에 대한 투자는 14.9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(96.2%)을 차지하고 있으며, 도매 및 소매업(29백만 달러, 1.9%), 제조업(21백만 달러, 1.4%)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Ⅴ. 종합의견

□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내수부진,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및 수출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.6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중국 등 광물수입국의 경기둔화로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, 국내 광물생산도 축소되면서 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5.2%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.

□ 빈부격차 및 치안불안이 지속되는 한편,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여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. 또한 여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의 탈당으로 의회 내 의석수가 축소되면서 정책추진력도 약화됨.

□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낮고, 외채구조도 건전한 편에 속함. 외환보유액의 경우 월평균수입액의 12개월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,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.

□ 종합하면, 광물 가격 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우나, 높은 성장잠재력과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페루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B2로 부여코자 함.

조사역 김지용(☎02-6255-5716)
E-mail: jyk@koreaexim.go.kr